

장리스 부인의 『회고록』에 그려진 관습과 변천*

이효숙**

I. 머리말: 회고록 장르와 ‘문학적인 회고록’

회고록 장르는 정체성이 모호하여 시대에 따라 또는 저자의 기질에 따라 양상이 다르며, 집필 동기, 형식,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규칙은 없어 보인다. 자전적 성격이 우선 대두되지만, ‘자서전’이나 ‘고백록’처럼 저자가 반드시 서술 내용의 주인공인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역사로 기록될 만한 주요 사건들의 주역이거나 최소한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점이 저자와 독자가 염두에 두는 첫 번째 요소일 것이다. 프랑스에서 회고록이 양산되던 19세기 초에도 기존에 막연하나마 회고록의 성격이라고 여겨지던 ‘공공성을 띤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이라는 카테고리 벗어나는 개인적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3S1A5B5A17083870).

** 연세대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이고 사소한 일들을 내용으로 하는 회고록들이 많았다. 그러면서도 회고록이 주는 공공성의 이미지를 여전히 의식한 듯 ‘추억담(Souvenirs)’이나 ‘나의 인생 이야기(Histoire de ma vie)’라는 제목으로 회고담을 펴낸 경우가 많아서 그들 간의 경계는 매우 흐릿했다. 이에 대해 루소의 『고백*Les Confessions*』(1765-1770년 집필; 1-6부는 1782년, 7부는 1789년 출간) 출간과 큰 성공이 그 영향력의 여파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17세기 프랑스 문학에 깊이 배어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Confessiones*』(397-401년 집필)을 “진정한 자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May, 1984, 19) 유럽 차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먼저 출간된 자전적 저술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여기서도 ‘자서전’의 장르적 특성의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루소의 『고백』을 자서전의 ‘혁신’으로 여긴 필립 르죈을 비판한 조르주 귀스도르프의 저술만 보더라도 이에 관한 논의가 격렬했음이 짐작된다. (Gusdorf, 1991)

기독교 전통에서 “가증스러운 나(*le moi haïssable*)”¹⁾의 이야기는 회개를 동반하며 신에게 바치는 찬양이어야 했다.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진실이 거하는 곳은 내면 공간”²⁾이어야 하므로 다른 인간들에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보아 온 그 누구와도 다른 ‘독보적인 나’를 『고백』의 서두에서 내세우는 루소처럼 자기 안에 “개인적이고 유일하게 있다고 믿는 것”(Bruntière, 1914, 167)을 표현하고, ‘자연’이란 이름으로 내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파격적이었다. 그런 만큼 깊은 인상을 준 루소의 영향, 산업화로 부상한 도시 부르주아 계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주의의 확산, 가톨릭교 권위의 점진적 약화로 인한 고해 기능의 약화 등이 ‘나’를 토로하는 자전적 글쓰기의 유행을 대략 설명하는 요인들일 것이다.

이런 유행이 일기 전 회고록 장르의 주인공은 저자 또는 중심인물이기보다 그들의 시대였다. 그래서 자서전보다는 역사물에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지

1) “Le moi est haïssable.” (Pascal, 1869, 277)

2) “*noli foras ire; in interiore homine habitat veritas*; ‘refuse la tentation de l’extériorité; c’est dans l’espace intérieur de l’homme que la vérité fait résidence’”. (Gusdorf, 1991, 29)

만, 역사가가 사실의 진실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엄밀히 따진다면, 회고록은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흔히 작용하고 진실성을 꼭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회고록 저자는 공적 활동과 주요 사건들에서 주역을 담당하거나 직접 보아온 인물들이므로 자신이 있던 자리로 인해 조건 지어지는 이해관계와 관점이 있게 마련이다. 걸작으로 꼽히는 회고록의 저자들인 필립 드 코민(Philippe de Comynes, 1447-1551), 드 레 추기경(cardinal de Retz, 1613-1679), 라로슈푸코 공작(François de La Rochefoucauld, 1613-1680), 생시몽 공작(Louis de Rouvroy de Saint-Simon, 1675-1755) 등은 주요 공직에 있던 인물들이다. 여성 저자로는, 성 바르텔르미 학살을 증언하는 회고록을 남긴 마르고 왕비(Marguerite de Valois, 1553-1615), 루이 13세의 아내 안 도트뤼슈의 수석 시녀이던 프랑수아즈 드 모트빌(Françoise de Motteville, 1615-1689), 프랑스의 마지막 왕 루이-필립이 어릴 적 그와 그의 형제자매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장리스 부인, 마리-앙투아네트의 시녀이던 캉팡 부인(Mme Campan, 1752-1822) 등도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주요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아주 가까이서 목격한 인물들이다.

시대를 잘 그려 보이려면 우선 그 시대를 잘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그 시대를 구동하는 활동과 사건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제에서는 군주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주요 관심 대상이고, 그들을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회고록 저자들이다. 공직에 있으면서 주요 활동이나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적어도 목격자로서 현장에 있던 이들이어서, 독자에게는 그들의 신분과 위상이 회고록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여겨진다. 소설이 무수히 쓰이고 읽히나 여전히 무시되고 경시되던 18세기에 소설가들이 자신이 창작한 소설을 ‘편지’나 ‘고백’이라고 내세우거나 ‘역사소설(nouvelle historique)’ 또는 ‘실화 이야기(histoire véritable)’라는 호칭으로 대신하면서 어떻게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님을 주장하려 애쓰는 가운데 ‘회고록’이라는 형식도 흔히 이용된다. 18세기 전반에만도 ‘회고록’ 형식으로 쓰인 소설이 2백 편이 넘는다고 하고 (Coulet, 2000, 295) 아베 프레보의 『어느

귀족의 회고담과 모험담 *Mémoires et aventures d'un homme de qualité* (1728-1741)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소설의 제목은 특이하기보다 당대 소설의 위상과 전형적 양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주의적 소설이 이미 17세기부터 부르주아 계층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다소 외설적이거나 노골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펼친다거나 르사주의 소설처럼 각계각층의 사기꾼들이 등장하는 소설도 대중적 성공을 거두긴 하나, 소설 주인공이 귀족층인 것이 대세 이긴 했다. 그리고 ‘mémoires’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제목에서 많이 보게 되는 ‘aventures’라는 단어는 사실상 모험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특별한 분위기가 기보다는 ‘겪은 일들’이라는 의미에 가깝지만, 대부분 주인공이 겪은 인생의 풍파와 천신만고를 담고 있으므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과는 달리 특별한 (extraordinaire) 일들이라는 함의를 띠긴 한다.

이런 배경은 본고에서 다루는 『1756년부터 오늘날까지 18세기와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장리스 백작부인의 미간행 회고록 *Mémoires inédits de Madame la Comtesse de Genlis sur le dix-huitième siècl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depuis 1756 jusqu'à nos jours*』(1825)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저자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궁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일상 속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이 당시 저술의 제목들이 통상 그러하듯 주제를 알려주기 위해 길게 붙은 설명적 부제에 따르면, 18세기 후반과 이 저서의 출간 시기인 19세기 초(1825년까지), 즉 정치 체제가 열 번 넘게 바뀌던 격동의 시기를 겪어낸 저자의 경험담과 목격담이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온갖 장르에서 글쓰기를 활발히 했던 장리스 부인³⁾은 오늘날 그 무엇보다 회고록 저자로 언급된다. 작가 생활을 시작했을 때 주력했던 장르는 청소년을 위한 희곡이었고, 대중적 성공을 확실히 얻은 작품은 소설(『아델과 테오도르 *Adèle et Théodore*』, 1782)이었으며, 이후로 죽

3) 통상 Madame la comtesse de Genlis라고 불리며, 부르고뉴 지방의 상세리(Champcéry)에서 1746년 1월 25일에 태어날 때의 이름은 Caroline-Stéphanie-Félicité du Crest. 1830년 파리에서 사망한다.

기 얼마 전까지 술한 소설들을 펴냈고, 당대에 대중의 주목을 꽤 받았다. 그러나 그 많은 작품 중 아직도 재출간되고 읽히는 작품은 전체 작품 수에 비하면 극소수이고, 심심찮게 인용되는 회고록과 20세기, 21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출간된 그녀에 관한 연구서들과 전기(傳記)가 그녀의 인지도를 유지케 한다.

총 10권으로 구성된 이 회고록은 그 분량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집필된 저술로서, 출간연도가 1825년으로 돼 있지만, 한꺼번에 출간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펴냈다는 사실이 제7권이나 제8권의 내용에서 드러난다.⁴⁾ 앞서 출간된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과 이에 대한 논평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⁵⁾ 총 10권의 구성은 출판사의 사후적(事後的) 기획이다. 저자가 의도한 내용은 제8권의 중간을 좀 넘어선 지점에서 끝나고, 그 뒤에는 식물을 주제로 하는 시와 회고록의 상세한 목차가 이어진다. 그리고 제9권에는 회고록과 유사한 자전적 저술이며 이미 1804년에 출간된 바 있던 『펠리시의 추억*Souvenirs de Félicie*』이 실리고, 제10권은 문학 관련 단상들을 종합해놓은 ‘잡록’ 형식이다. 이런 구성은 장리스 부인의 삶을 형성한 모든 요소를 총망라하고자 하는 편집인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무규칙성이 허용된다는 점이 회고록의 특성 중 하나임을 확인케 해준다.

본고는 이 회고록에서 구체제 프랑스에서의 관습이나 풍속, 대혁명기를 거치면서 변화된 사회에 대한 ‘증언’, 문화적 유산의 가치가 격변 속 인간에게 의미하는 바로서의 ‘체험’, 그리고 이를 서술하는 방식 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회고록’의 저자 중에는 샤토브리앙 같은 문학인도 있으나 프랑수아 기조(François Guizot, 1787-1874)처럼 역사가도 있다. 장리스 부인은 “역사적 회

4) 장리스 부인은 이 회고록 서두에서 본격적인 집필 시작은 1812년이라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오를레앙 공의 아이들을 교육하느라 뵈스스 가(현재 파리 7구의 하원 의사당 근처)에 있을 때부터라고 명확히 한다. 어린 시절의 일화들과 이후의 상세한 묘사들은 일기나 여행 기록 등의 개인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회고록에서 여러 차례 환기한다. (Genlis, 1825, t. I, 5; t. VII, 347, 351; t. VIII, 64, 73, 85.)

5) 일례로, 우연히 보게 된 생-질리앵 부인(장리스 부인이 젊었을 적 페르네를 방문했을 때 만난 적 있음)은 볼테르에 관한 묘사에 대해 장리스 부인에게 불평한다. (Genlis, 1825, t. VI, 134)

고록(mémoires historiques)'은 그저 역사를 위한 자료들일 뿐”(Genlis, 1825, t. V, 220)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반해 그녀는 이야기의 즐거움과 효용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무수한 일화들의 삽입과 연극적 효과가 두드러지는 서술방식을 통해 ‘문학적인 회고록(mémoires littéraires)’을 구현했다.⁶⁾ 당대의 역사적 사건은 이제 막 겪은 일들이므로 해석이 다분히 주관적인 편이지만,⁷⁾ 그래도 역사가들의 눈길을 끈 이유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사회 변천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격변의 시대를 겪은 일생을 담은 이 저술은 전체적으로는 회고록이라는 틀을 취했으나 시기마다 다른 장르의 글쓰기 양식을 보인다. 대혁명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한 기점들로 그녀의 인생을 구획해 보면, 대혁명 이전 구체제 귀족 생활, 망명 생활, 프랑스로 돌아온 후의 생활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시기의 서술이 몇 가지 ‘하위 장르’의 양식을 띤다. 어린 시절부터 망명 전까지의 회고는 ‘추억담(souvenirs)’, 망명 생활의 묘사는 ‘여행기(récit de voyage)’, 프랑스로 돌아온 이후의 기록은 ‘풍경(tableaux)’이나 ‘시평(時評, chronique)’처럼 서술되고 기술되어, 내용이 시대를 증언한다면, 형식은 당대 문학의 유행을 드러낸다. 거의 모든 문학 장르의 글쓰기에 매진했던 작가가 묘사하고 서술하는 시대의 풍속과 관습은 이른바 ‘역사적 회고록’과는 달라서 단순 묘사의 건조함보다 풍부한 이미지의 다채로움으로 장식되며, 교훈적 일화들이 주는 지혜의 전수라는 목적성을 띤다.

6) 샤토브리앙의 『무덤 너머의 회고록 *Mémoires d'Outre-tombe*』은 1849년에 출간되었으므로 장리스 부인이 사망한 후이다. 그러므로 샤토브리앙의 회고록이 모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녀는 『기독교의 정수 *Génie du christianisme*』(1802)를 읽고 매우 열광하며 샤토브리앙에게 찬사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장리스 부인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내내 우호적으로 보이는데, 샤토브리앙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그녀에 관해 얘기할 때는 상대적으로 덤덤한 느낌이다.

7) 대혁명을 막 겪고 체제가 연이어 바뀌던 19세기 초, “회고록들이 훨씬 많긴 했으나 그 어느 시대보다 진실하지 못했고”, “거짓말투성이인 회고록도 있고, 아예 소설로 쓴 회고록도 있다.” (Fomeron, 1884, vol. 1, III)

II. 추억 속의 구체제 상류사회, *Souvenirs*

대부분의 회고록이 그렇듯이 장리스 부인의 회고록도 자신의 출생, 부모의 결혼에 얽힌 일화로 시작된다.⁸⁾ 17세기의 회고록들뿐만 아니라 1858년 출간된 프랑수아 기조의 회고록 등 ‘전통적인’ 양식을 취한 회고록들도 저자가 자기 신분에 관해 간략하나마 언급한다. 그런데 기조는 아마도 샤토브리앙을 염두에 둔 듯 “나는 그런 대화들처럼 꾸며대고 세세하게 늘어놓는 일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Guizot, 1858, t. I, 84)라며 요점, 즉 본질적인 것만 언급하겠다고 한다. 반면, 장리스 부인은 부모, 자신의 출생 등에 얽힌 일화를 상세히 전한다.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나의 인생 이야기’ 식의 자전적 저술에 가깝다. 18세기에 ‘*Souvenirs*’라는 제목으로 개인적인 경향의 회고록도 많았는데⁹⁾, 이 유행은 “구체제의 추억에 목말라 있고, 역사의 대혼란을 이해하고자 열망하는 대중”(Seth, 2013, 7)으로 인해 19세기에도 지속되었다. 장리스 부인의 『펠리시의 추억』도 회고록보다는 개인적 회고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이 헌정사에서 드러난다. 오로지 동생과의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서 펴낸 글이라고 밝히기 때문이다. (Genlis, 1857, 1) 한편, 『펠리시의 추억』은 1857년에 드레비 공작(Pierre-Marc-Gaston de Lévis, 1764-1830)의 『추억과 초상*Souvenirs et Portraits*』(1813)과 함께 1857년에 재출간된다. 편집인은 ‘일러두기’에서 “동시대인들에 따르면, 『펠리시의 추억』은 궁정에 관해서나 상류사회에 관해서 루이 15세 치세 말 무렵과 루이 16세 치세 첫 몇 해의 풍속과 예법을 가장 충실하고 호감 가게 그려낸” 저서이며, 집정정부에서 제정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출간되어 어머머마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설명한다. 즉, ‘추억담’이라는 의식하에 쓰인 『펠리시의 추억』도 독자에게는 『회고록』과 별 차이 없이 수용된

8) 폴 리코르에 따르면, “내 인생의 단면들 전체는 다른 사람들, 부모, 친구, 직장 동료, 함께 노는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의 부분”을 이루므로 그렇다. (Ricoeur, 1990, 190)

9) “Mais alors on n'avoit pas, comme de nos jours, la manie des *souvenirs*;” (Genlis, 1825, t. II, 10); “On a écrit de nos jours beaucoup de souvenirs; mais on n'en a point publié de plus agréables que ceux de madame de Caylus.” (Genlis, 1825, t. VIII, 239)

것이다. 게다가 『회고록』에서 대혁명 초기까지의 내용은 『펠리시의 추억』에 담긴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펠리시의 추억』을 읽고 난 후 『회고록』을 읽으면, 앞부분에서는 이미 읽은 책을 읽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회고록』의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이 시기는 가장 먼 과거이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일들에 관한 회상이므로 매우 감성적이다. 사실의 객관성이나 정확성보다는 향수와 애뜻한 마음의 표현들이 두드러져서, 부르주아들의 성(城)들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목가적이고 서정적으로 묘사된다. 이런 강렬한 추억들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생명의 샘에서 펴 올려지고”, 바로 그 강렬함이 “진실성을 담보하는” 듯하다. (Lejeune, 1998, 36) 어릴 적 어머니와 파리의 친지방문을 통해 주류 상류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한 일도 그런 강렬한 추억에 포함된다. 그래서 지방 귀족의 생활과 파리 상류사회의 분위기가 교차로 묘사된다. 귀족 여성들의 교육, 결혼 풍습, 음악이나 연극을 통한 문화생활, 사교와 여행, 재정 관리 등에 관해 자신의 형편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구체제 프랑스 상류사회의 풍속과 시대 정신의 한쪽을 그려 보인 것이다. 구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의 구체적 사례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들의 생활상은 여유의 지혜로운 활용이라는 측면도 있다. 그 문화유산이 평안한 시절에나 고단한 때나 삶을 견디게 해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탈 부인에 따르면, 프랑스는 “관습에 의해 통치됐으며, 변덕에 의해 통치된 적도 자주 있으나 법으로 통치된 적이 결코 없고 [...] 오로지 상황이, 각자가 자신의 권리라고 부르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나라”였다. (Staël, 1818, 142)

장리스 부인의 가족사에서부터 구체제의 양육과 교육의 혼란 양상이 드러난다. 일찍이 과부가 된 외할머니는 재혼하면서 여덟아홉쯤 된 아들을 기숙학교로 보내고, 여섯 살의 딸은 수녀원에 맡긴다. (Genlis, 1825, t. I, 114) 펠리시테의 남동생도 겨우 너댓 살에 파리의 기숙학교에 들어간다. 반면 펠리시테는 오르간 주자의 딸인 열여섯 살짜리 마르스 양에게 맡겨진다. 어머니는 생토뱅 영지(領地)의 안주인으로서 사교 활동으로 분주하고, 아버지의 주요 일과는

사냥이었다. 그가 딸의 교육에서 바라던 것은, 그저 강하게 크는 것이었다. (Genlis, 1825, t. I, 12, 27) 펠리시테가 가정교사와 함께 읽은 책이라고는 서재에 있던 마들렌 드 스키테리의 『클렐리, 로마 이야기 *Clélie, histoire romaine*』(1654-1660)와 마리-안 바르비에(Marie-Anne Barbier, 1664-1742)의 희곡들이 전부다. 상류층 여식(女息)들은 현모양처가 되도록 신심 깊고 정숙한 아가씨로 성장하게 통상 수녀원에 보내지지만, 사실상 소설이나 몰래 읽으며 공상과 허영심을 키울 뿐이라는 것이 당대 교육에 대한 비판 중 하나인데¹⁰⁾, 펠리시테가 받은 교육도 그런 우려에서 벗어나기 힘든 지경이다. 그러나 장리스 부인은 “겸손, 온화함, 완벽한 선함의 모범”이던 그 어린 스승과의 “대화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형성”해주었다고 회고한다. (Genlis, 1825, t. I, 31) 더욱이 이때의 “이상한 교육”이 그녀의 “상상과 성격에 종교적이면서도 공상이 혼합된” 정서가 깊이 새겨져서 “작품들 대부분에 너무 큰 흔적”을 남긴다고 한다. (Genlis, 1825, t. I, 38) 어머니는 딸에게 음악과 춤, 연극에 관해 기본적인 소양도 키워주려고 타지의 선생들을 불러들인다. 펠리시테는 “아침이면 클라브쟁을 좀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으며, 이어서 연기를 익히고 춤 교습을 받고, 펜싱을 했다. 그 후 점심 식사 때까지 마르스 양과 책을 읽었다.”(Genlis, 1825, t. I, 31, 38, 48-49) 배움의 열정은 이후로도 꺼지지 않아서 탐독과 집필, 악기 연습으로 그녀의 하루, 일생이 채워진다.

장리스 부인이 된 펠리시테는 샤프트르 공 부인의 말동무(dame de compagnie) 자격으로 팔레-루아얄에 들어가서 산다. 직무상 오를레앙가의 구성원과 식솔을 가까이서 관찰하게 되는데, 그들을 소개하는 방식은 17세기부터 유행한 ‘인물 묘사(portrait littéraire)’ 형식이다. 그녀에게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샤프트르 공의 부실한 교육이다. 교육 총책(gouverneur)이던 풍 생-모리스 백작은 세 가지만 신경 썼다. “예절, 기분 좋은 태도, 적절한 거동”. 즉 외양에

10) 수녀원 교육의 실상이 다 그렇지는 않다. 장리스 부인은 결혼 후 들어가 있던 오리니(Origny) 수녀원에서의 교육이 “덕성스럽고, 한곳에 머무르고, 합리적이며, 지방에서 살게 될 여성들로 성장케 하기에 매우 훌륭했다.”라고 회고한다. (Genlis, 1825, t. I, 171-172)

주력했고, “정신 배양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Genlis, 1825, t. II, 180-181) 제자도 정신적인 것에 무관심해져서 다른 교육 담당자들의 수고를 무의하게 만든다. 샤르트르 공은 15세에 벌써 접견을 받기 시작했고, 교육을 마친 후 오를레앙공이 아버지로서 해준 첫 배려는 15세 여자애를 애인으로 붙여준 일이었다. 그레농고는 “이들의 건강을 위해 매우 신중하고 애정 어린” 처사였다고 자랑하지만, ‘숫처녀’로 행세한 이 여자애는 사실 방탕한 여자애였다.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탕이는 아니었던 샤르트르 공은 17세에 들어간 사교계에서 귀족 여인들의 “가식과 압전한 척하는 태도”, 과장된 감정 표현 등에 놀라고, 이에 “데면데면, 냉담과 가벼움”으로 대처한다. (Genlis, 1825, t. II, 182-184) 이 일화는 “자연이 씨앗(자질)을 주어야만”(Genlis, 1825, t. VI, 20-21)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장리스 부인의 교육적 신념이 깔린 증언이기도 하다.

팔레-루아얄의 일상은 사교 모임으로 점철된다. ‘작은 날’(petits jours)과 ‘큰 날’(grands jours)로 나뉘는데, ‘작은 날’에는 친밀한 사교모임을 하는 날로서, 참석자의 목록이 정해져 있다. 18-20명까지 되기도 하나, 10-12명 정도인 경우가 더 흔했다. 여인들은 모두 원탁에 둘러앉아 수를 놓거나 다른 소품을 만들었으며, 남성들은 가까이 앉아서 재기 있는 대화를 나눴다. (Genlis, 1825, t. II, 212) ‘큰 날’은 팔레-루아얄에 소개된 적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날로서, 오페라 공연이 있는 날이 그런 경우다. 무도회가 열리는 날이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 장리스 부인은 아직 이 궁에 거주하기 전에 오를레앙공의 초대로 가면무도회에 참석했다가 인파에 깔려 죽을 뻔한 적도 있다.

“우리는 널찍한 공간 두 개를 다행히 통과했으나, 왕실 가족이 있던 방 직전에 있는 세 번째 방 한가운데서 느닷없이 누가 나를 오를레앙공의 팔에서 빼내는 바람에 나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았기 때문이다. 나는 밀쳐지고 들어 올려지고 짓눌리고 치워져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런 극한 상황에 오를레앙공을 눈으로 찾아보았으나 소용없었다. 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내 두려움은 극에 달했는데 [...]”¹¹⁾

장리스 부인은 지인에 의해 구제되지만,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전쟁터의 부상자처럼” 참혹한 상태로 의식을 잃는 여인도 있었다. (Genlis, 1825, t. II, 64)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사교 모임이 팔레 루아얌만 있는 게 아니다. 콩티 대공의 탕플 저택에서는 월요일마다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늘 최소 15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Genlis, 1825, t. II, 138)

히층민의 피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런 풍습은 몰락한 지방 호족이나 형편 안 좋은 도시 귀족이 궁핍할 때 얼마간 어려움을 덜어주는 순기능도 있었다. 그리고 상층 부르주아 중에도 이렇게 넉넉히 베푸는 귀족 풍습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다. 장리스 부인이 13세 때 친지들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파리로 올라와 여름 내내 묵었던 곳도 징세 청부인 드 라 포플리 니에르(Alexandre Jean Joseph Le Riche de La Popelinière, 1693-1762)의 집이었다.¹²⁾ “호사스러움과 선행으로 유명한” 이 부르주아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여 재능들을 지원해주던 터라, 어린 펠리시테의 하프 연주에 감탄했다. 그 체류가 장리스 부인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은 것은 물론이다. (Genlis, 1825, t. I, 83-90)

귀족 사회의 사교 활동에서 연극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공연 관람은 물론이고, 이른바 ‘사교 연극’을 포함해서다. 이 사교 연극에 음악이 곁

11) “En effet nous traversâmes heureusement deux grandes pièces; mais au milieu de la troisième, qui précédoit celle où se trouvoit la famille royale. on m'arracha subitement du bras de M. le duc d'Orléans. Je fus emportée par le flux et le reflux, car beaucoup de gens vouloient retourner sur leurs pas; c'étoit même le plus grand nombre. Je me trouvai poussée, ballottée, pressée, enlevée; mes pieds ne touchoient plus la terre. Dans cette extrémité, je cherchois en vain des yeux M. le duc d'Orléans; je l'avois absolument perdu de vue; ma frayeur étoit au comble, [...]” (Genlis, 1825, t. II, 62-63)

12) 천천히 이데올로기를 명확히 하고 나서 새로운 사회의 틀을 만들어낸 강력한 부르주아 계층이 히층민과 귀족층 사이에 존재했다는 점이 프랑스 사회의 독특한 점이라고 프랑수아 기조는 논증했고, 토크빌과 테느도 이 의견에 동조했다고 알베르 소블은 설명한다. (Soboul, 1981, 25)

들어지는 일도 흔했다. (Genlis, 1825, t. I, 102-103, 144, 146; t. II, 77) 펠리시테는 어릴 적 야외 활동이 힘든 겨울이면 어머니가 만들게 한 작은 간이무대에서 라신, 볼테르, 몰리에르, 르냐르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연기했다. 이런 작은 공연은 기획, 연기 연습, 무대 준비, 공연 집행과 관객 초청 등의 모든 과정이 가족끼리 또는 하인들이나 친지들과 함께 이끌어졌다. 이를 위해 오페라의 무용수나 유명한 연극배우들을 불러서 연기도 배우고, 함께 연기하기도 했다. (Genlis, 1825, t. I, 43-56, 313-314) 이런 공연의 빈도와 참여자들의 열의. 관객(종종 주변 친지나 이웃뿐만 아니라 마을 농민들¹³⁾)의 호응 등을 고려해 보면, 연극이 이 시대에 그저 문학이나 공연물의 한 장르가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윤희할 기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장리스 부인의 초기 작품도 연극 장르였음은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작품들은 금세 성공을 거두었다.

17-18세기의 연극이나 소설에는 결혼을 주제로 하거나 결혼으로 마감하는 작품이 많다. 장리스 부인의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며, 회고록에도 그 흔적을 남긴다. 재혼도 흔했던 듯, 그녀의 외할머니, 어머니도 재혼했다. 어머니의 이복동생인 몽테송 부인은 19세에 연 8만 리브르의 수입을 누리는 몽테송 씨(78세)와 결혼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오를레앙공과 비밀결혼을 한다. 혼인에 있어서 가문을 따지는 풍습이 집안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돈이 관건인 거래관계의 성격이 내포돼 있고 그 바탕에 허영도 깔려 있다. 귀족은 돈 벌기 위해 일하지는 않고, 공직 또는 전쟁이나 종교적인 일, 사냥을 위시한 스포츠 등으로 삶의 시간을 채우는 ‘leisure class’라고 정의된다 해도, (Veblen, 1899, 7) 그렇다고 해서 돈에 무관심하다는 얘기는 아닌

13) 장리스 부인은 결혼 후 남편과 아주버니 부부와 함께 연극 공연을 주최하던 일을 회고하면서 “관객으로는 우리의 이웃과 농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님과 아버지가 서로 알아보는 눈물겨운 장면에서 폭소를 터뜨렸다. 필립 옹베르를 연기하느라 흰 가발을 써서 노인의 분위기를 띠려 하지만 관객들이 알아보고야 만 서른두 살의 이웃이 더할 수 없이 희극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며 연극 공연 이벤트가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는지 묘사한다. (Genlis, 1825, t. I, 246).

거다. 서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한 장리스 부인의 추억담에서 돈 문제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불쑥 튀어나오기 일쑤이다.

“장리스 씨가 당시 소유한 재산은 장리스 영지에서 5리 떨어진 곳인 시씨의 땅뿐이었다. 그 땅은 1만 리브르의 수입을 얻게 해주었는데, 오늘날로 치면 2만 리브르의 가치는 된다. 우리는 5천 리브르밖에 지출하지 않아서 매우 안락하게 살았다.”¹⁴⁾

장리스 백작의 형인 장리스 후작은 한량 유형인데, 그의 인물 묘사를 통해 당시 도박이 얼마나 성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중 하나인 장리스 영지를 소유했고, 언젠가 실르리 땅도 상속받게 될 게 확실하며”,(Genlis, 1825, t. I, 166) 15세에는 뤼지의 후작 덕분에 대령이 되어 전도유망한 듯 보였다. 구체제에서는 청탁과 매관매직을 통해 공직자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흔하여 이런 관행이 1789년의 ‘삼부회의 진정서(Cahiers de doléance)’에서 가차 없이 고발되지만, (Bluche, 1993, 40-42) 장리스 부인은 중세부터 행해져 온 이 ‘관행’에 대해 비판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장리스 후작은 좋은 혼처도 정해져 있었으나 17세에 도박에 빠져들어 20세에는 도박으로 하룻밤에 20만 프랑을 잃기도 한다. 격노한 뤼지의 후작은 왕의 봉인장을 얻어내서 이 피후견인을 소뮈르 성에 감금하고 거기서 5년을 지내게 한다. 군인 경력도 끝장났다. 빛의 반쯤은 집안에서 갇히게 되고, 나머지는 그의 영지에서 얻는 수입으로 갚아나가게 했다.

게다가 도박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장리스 부인의 지인인 몽토방 부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도박을 즐긴다. “좋아해서라기보다 할 일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엔가는 내깃돈을 두 배로 늘려서 크게 잃는다. (Genlis, 1825, t. II, 178) 그래도 품위는 잃지 않아서, 돈을 탄 인물이 자기도

14) “Le seul bien que M. de Genlis eût alors était sa terre de Sissy, à cinq lieues de Genlis; elle valait dix mille livres de rentes, et c’était dans ce temps comme vingt mille aujourd’hui; nous n’en dépensions pas cinq, ainsi nous étions fort à notre aise,” (Genlis, 1825, t. I, 259.)

모르게 그녀의 드레스 속으로 흘린 금화들을 고스란히 돌려준다. 도박은 팔레-루아얌에서도 일상적으로 즐기는 놀이였다. 장리스 부인은 저녁 식사 후 벌어지는 도박판이 파할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제일 괴로웠다고 회고한다. 이 도박판은 때때로 새벽 서너 시까지 이어졌다. 구두쇠로 유명한 샤프트르 공이 아내의 빚을 갚아주는 일까지 있었다. 장리스 부인은 궁정과 도시에서 큰돈을 거는 도박이 성행한 데 대해 루이 14세가 “도박을 충분히 처벌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의무를 너무 늦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Genlis, 1825, t. V, 214-215)

과거의 추억에 대한 묘사에 이어지는 성찰, 즉 현재 집필하고 있는 ‘나’의 성찰은 행복했던 시절을 다시 음미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종종 비판적 논평으로 이어진다. 어릴 적 상류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내려고 연마하던 재주가 도덕과 이성을 겸비하지 않으면 허영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성찰도 그중 하나다. 장리스 부인은 멘토이던 마르스 양이 떠난 후 “허영이 활동의 주요 동인(動因)”이었다고 회고하면서 “음악과 하프를 진정으로 좋아하긴 했으나 신동으로 입에 올려지고 유명한 예술가들이 들으러 와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남모르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그토록 오래 꾸준히 연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Genlis, 1825, t. I, 104-105) 허영은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의 풍속에서 추동력으로 작용한다. 혼인계약에서도 이해타산이 작용하지만, 허영으로 인한 이해타산이다. 27세의 장리스 백작이 무일푼인 18세의 펠리시테와 사랑으로 결혼하려는 것이 외무장관 뤼지와 후작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서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모인 몽테송 부인도 젊은 애인이 있었으나 허영심 때문에 오를레앙공과 재혼하고, 조카가 결혼으로 뤼지와 후작 집안에 속하게 되자 “허영심이 만족하여” 태도가 바뀐다고 장리스 부인은 비웃는다. (Genlis, 1825, t. I, 160)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추억을 더듬으며 무수한 일화들을 서술하는 가운데 장리스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구체제 상류사회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요소 등을 파헤쳐 보인 셈이다. 특히 좋은 추억의 반추는 망명 시절이나 프랑

스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되새겨지며 어려움을 헤치는 데 심리적 자원으로 서 또는 못마땅한 현실의 반사경으로서 기능한다. 귀족들의 생활상은, 특권적 향유라는 사회적 불의를 잠시 잊어본다면, 여유의 지혜로운 활용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른바 ‘삶의 기술(art de vivre)’이라 일컬어지는 문화적 자산이 인생의 부침 속에서 장리스 부인의 삶을 버텨내게 해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II. 타국인들의 환대(歡待)와 동포들의 배척, *Récit de voyage*

18세기 프랑스 문학의 주인공 중 상당수는 유랑객이다. 텔레마크, 우스베크와 리카, 질 블라스, 마농 레스코, 클리블랜드, 칸디드, 생-프뢰, 운명론자 자크 등... 허구 이야기 속 이 유랑자들 대부분은 천신만고 중에 또는 끝에 깨달음을 얻는다. 현실 속에서 여행은 교육 수단의 하나이고, 사상가들에게 ‘기행 문학’은 철학적 성찰이기도 했다. 자비에 드 메스트르(Xavier de Maistre, 1763-1852)의 『나의 방 일주 *Voyage autour de ma chambre*』(1795) 같은 작품도 있긴 하지만, 기행 문학은 대체로 익숙한 곳을 떠나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 가운데 새로운 문물을 배우고 다른 풍속을 알아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담은 ‘여행기(*récit de voyage*)’ 또는 ‘여행담(*relation de voyage*)’도 먼 곳, 미지의 나라, 미답(未踏)의 장소에 관한 내용을 신는다. ‘다른 곳’에 대한 필자의 호기심이 독자의 호기심과 만나는 글이다. 그런데 호기심이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해 떠돌게 된 망명객의 유랑은 망명지에서의 환대나 배척으로 그 향방이 결정되고, 고향 또는 원점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여행이다. 세낙 드 멜랑(Gabriel Sénac de Meilhan, 1736-1803)의 『망명자 *L'Emigré*』(1797)에서처럼 정성으로 돌봐주는 덕성스럽고 아름다운 여인과의 인연은 소설에서나 가능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설 같은 일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것을 장리스 부인은 증언한다. 대혁명 전에는 오를레앙가와의 관계로 인해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 타지에서 후한 대접과 혜택을 누렸다면, 망명 중

에는 그녀 자신이 쌓아온 명성이 은인들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다.¹⁵⁾ 그런데 불안한 유랑 생활보다 더한 위기는 흠어져 있는 가족 구성원의 고난이나 사망에 관한 소식이었다. 생명을 때때로 위태롭게 하던 불행이다. 이토록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을 버텨내며 9년을 떠돌던 시기에도 그녀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그날그날의 일상과 사진, 만남과 서신교환을 기록하고, 각 방문지의 관습이나 풍속도 빼놓지 않았다.

장리스 부인이 망명을 결심한 것은 1791년 루이 16세가 도피하다가 붙잡혀 돌아오는 사건이 생겼을 때다.¹⁶⁾ 그해 10월 11일, 그녀는 아델라이드, 파멜라¹⁷⁾, 조카 앙리에트와 함께 칼레를 통해 영국으로 건너간다. 오를레앙공¹⁸⁾이 런던에 사놓은 집에서 보름 정도 머물다가 바스(Bath)로 가서 두 달 지내고 브리스톨로, 이어서 스타우어헤드 성으로 옮겨 간다. 그녀는 왕가의 아이와 다니는 형편이라 더 위험한 처지에서도 유적지나 유명한 장소를 방문한다. 스타우어헤드 성에서는 공원의 탑 꼭대기에서 알프레드 대왕이 덴마크로부터 영국민의 해방을 선포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며 감격해한다. 그리고 베리(Bury)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여러 번 방문하고, 더비셔 동굴 중유석을 보러 가는 등, 잉글랜드를 두루 구경 다닌다. 쫓기는 형편만 빼고 보면 유럽의 왕족이나 귀족들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grand tour’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불안이 때로 극에 달했다. 장리스 부인 일행이 머무는 집을 불태우겠다는 익명의 편지를 받기도 하고(오를레앙가에 적대적인 망명 귀족으로부터

15) 그녀의 회곡 작품들이 대혁명 전에 이미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16) 장리스 부인은 팔레-루이얌 입궁 후 얼마 되지 않아 오를레앙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벨사스 수도원의 정원에 별채를 지어 왕가 아이들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지내기 시작한다. 1777년, 그녀의 나이 31세 때다. 대혁명이 발발했을 때도 그곳에 있었다. 가까운 데 있는 국민회의 건물에 아이들과 가기도 하고, 초기 자코뱅의 회기나 코르들리에 클럽의 회기에도 간 적이 있다. 정치적으로 그들과 뜻을 같이한 적이 없으나 나중에 이 때문에 망명지들에서 다른 망명객들로부터 자주 위협을 받는다.

17) 아델라이드의 영어교육을 위해 영국에서 오게 했던 토래 아이.

18) 이 루이-필립 도르레앙공(1747-1793)은 앞서 샤르뜨르 공이라 칭한 인물을 가리킨다. 아버지 필립 도르레앙(1725-1785)이 죽자 얻게 된 칭호이고, 프랑스의 마지막 왕 루이-필립의 아버지이다.

터 온 편지), 그 1792년 9월에 프랑스 정기간행물을 통해 왕의 실추와 공화국 설립 소식까지 알게 된다.¹⁹⁾ 게다가 얼마 안 되어 벨기에는 프랑스에 귀속되었다가 오스트리아 군대에 넘어간다. 이제 장리스 부인은 다른 나라로도 프랑스로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불안과 불편증에 시달려서, “다행히 프랑스 영토에서 벗어나더라도, 남의 나라들에서 뭐가 되겠는가? 추천서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토록 악랄하고 악착스러운 중상모략을 해대는데, 도대체 어디서 은신처를 찾는단 말인가? 망명객들의 증오에, 박해에 무엇으로 맞선단 말인가?”라고 절규한다. (Genlis, 1825, t. IV, 163-164, 173)

장리스 부인 일행은 신분을 자주 위장해야 했다. 유럽 도시 대부분이 망명객을 공화파건 왕당파건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녀는 망명객들 양쪽을 다 경계해야 하는 처지였다.²⁰⁾ 독일을 관통할 때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피해야 해서 우회로로 다녔다. 라인강을 따라가며 볼타버린 마을도 보고, 대포 소리도 들었다. 취리히에서 정착하려 했으나 행정관들이 아델라이드 도를 레앙이라는 이름을 듣자 체류를 허락하지 않았고, 프랑스 망명객 여럿이 그들의 신분을 알아채고 못되게 굴었다. 그래서 쥐그(Zug)로 가서 아일랜드 가족인 척하며 외딴집에 묵는다. 이웃 농민들은 친절했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는가 싶더니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곳을 지나던 망명객들이 그 당시 장리스

19) 대혁명 이전에 영국을 방문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은 바 있는 장리스 부인은 망명 시절에도 영국인 지인들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는다. 이 시기에 프랑스 내부 사정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오를레앙공은 장리스 부인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델라이드를 돌려보내라고 지시하는데, 그녀는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가서 가정교사 직책도 사직하기로 결단하지만, 서로의 편지들도 엿갈리고 혁명 정부의 지침도 수시로 바뀌어 파리로 돌아갔던 일행은 급히 벨기에로 다시 망명을 떠난다. 자코뱅 편에 선 오를레앙공의 정치적 행보 때문에 이후로는 망명 귀족들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형편이 된다.

20) 고관대작이나 상층 부르주아가 우선 떠났고, 바스티유 함락이 있고부터는 다루투아 백작(샤를 10세)과 콩테 대공들이 망명하고, 귀족들이 곧이어 뒤따르고, 우파 의원들, 군주제 옹호파, 유형 위협을 받는 사제들도 떠난다. 1793년 여름부터는 지롱드파도 떠나고 망명객들이 많아진다. 그들은 유럽 전역으로 흩어진다. 특히 라인란트에 많았는데, 이들은 제3신분과 부르주아, 직급 낮은 사제나 혁명이 과도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던 농민들이었다. 이렇다 보니 망명객들 가운데 도당들, 궁정 파벌 등이 다시 형성되었다. (Petitfils, 1973, 12) 프랑스 문화성에 따르면, 1789년에서 1800년 사이에 망명한 사람들의 추정치는 15만 명이다.

부인 일행과 함께 있던 샤르트르공(아델라이드의 오빠)을 알아보았다. 바로 그날로 쥐그 주민 전체가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됐으며, 독일 잡지들에 이에 관한 기사가 실린다. 그러자 쥐그 행정관들은 전전공공하다가 그들에게 다른 은신처를 찾아보라고 통고한다. (Genlis, 1825, t. IV, 196-200)

장리스 부인은 망명 때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위기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수도원을 택한다. 망명 중 스위스에서 장리스 부인 일행을 받아줄 도시가 없어 보이자, 제네바에서 잘 정착하여 존경도 받는 몽테스키우²¹⁾에게 도움을 청하여 브렘가르텐의 장크트 클라라 수녀원에서 묵게 된다. 하지만 브렘가르텐 주민 중 몽테스키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모든 프랑스인을 추방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장리스 부인은 다시금 “이 한겨울에 하인도 없고, 여권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친구들도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물음을 되풀이한다. (Genlis, 1825, t. IV, 225) 다행히 브렘가르텐의 관할 상급 도시인 취리히에서 이를 취소시키지만, 이 해프닝은 프랑스 망명객의 처지가 시시각각 불안정했고, 망명객을 받는 유럽 도시들도 당혹스러운 처지였음을 보여준다.

아델라이드 도를레앙이 스위스 프리부르크에 있는 숙모에게 맡겨져서 장리스 부인은 마침내 흥분분하게 유랑을 계속한다. 슈투트가르트를 지나가게 된 그녀는 오하임의 “기발하고 그림 같은” 정원을 방문하여 “원기둥과 궁궐의 웅장한 폐허 위에 예쁜 초가집들이 있는 부분”을 흥미롭게 보면서 “운명과 인생의 부침을 상징하는” 건축물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 (Genlis, 1825, t. IV, 279-280) 마인츠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라인강으로 쾰른까지 가서 마차를 빌려 위트레흐트로 간다. 거기서 둘째 사위 발랑스를 만나 알토나에 정착할 계획을 논의하고, 알토나 정부가 망명객들을 받아들일 만큼 “현명하고 관용적이며 온화한지” 알아보려고 홀로 방문한다. (Genlis, 1825, t. IV, 285-286) 이

21) Ambroise Anatole Augustin de Montesquiou-Fézensac (1788-1878). 몽테스키우-페장삭 남작. 나폴레옹과도 우호적이고, 오를레앙가와도 친밀한 사이였다. 군대와 정치계에서 연이어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갔다.

때도 시중들어줄 사람 없이 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층의식을 여전히 드러내고, 어느 여인숙에서 지내며 망명 전에 영위하던 생활을 되찾으며 “좋은 피아노, 하프, 기타, 물감, 붓, 필기도구, 몇 권의 책, 누가 빌려준 식물도감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말할 수 없이 빠르게 흘렀고, 그런 식으로 9개월을 완전히 익명으로” 보냈다고 한다. (Genlis, 1825, t. V, 289) 그녀는 알토나의 이 여인숙에서도 기록 습관은 여전해서, 여인숙 주인인 플록 씨의 사망 때 이 지방의 낯선 장례 풍습도 묘사해둔다.

“망자는 얼굴을 드러나게 해놓고, 아름다운 캐미솔을 입혀서 얹혀놓았다. 두 손은 침대 커버 위로 펴놓았고, 수 놓인 침대 커버 위로 꽃들과 로즈메리 가지들을 잔뜩 던져놓았다. 그리고 밤낮으로 타오르는 램프들이 침대를 둘러쌌다. 그 방으로부터 마당 반대쪽에 내 방이 마주하고 있어서, 옛새나 지속되는 그 진열 기간 내내 그 빛이 보였다. 장례의 그 밝음은 물리칠 수 없는 슬픔을 불러일으켰다. 그 집의 모두가 주어진 관습에 따라 망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지만, 나는 면제받았다. 매장 절차는 매우 아름다웠다. 남자들이 아주 많았는데, 기혼자들은 손에 레몬 하나씩 쥐고 있었고, 미혼 남자들은 로즈메리 가지 하나씩 들고 있었다.”²²⁾

환대(hospitalité) 면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는 함부르크였다. 장리스 부인이 이 도시 인근에서 사는 사위의 집에서 지내던 중 조카가 함부르크 무역상과 결혼을 하므로, 장리스 부인은 이제 연고도 생긴 그 관대한 도시에서 편하게

22) “Le mort, à visage découvert, fut revêtu d'une belle camisole et mis sur son séant, ses deux mains étendues sur un couvre-pied, brodé sur lequel on jeta des fleurs et un grand nombre de branches de romarin: on entoura son lit de lumières qui doivent brûler nuit et jour; sa chambre, à l'extrémité de la cour, étoit vis-à-vis de la mienne; ses fenêtres n'avoient point de volets; je vis ces lumières pendant tout le temps de l'exposition, qui dura six jours, et cette clarté funéraire me causoit une tristesse invincible. Toutes les personnes de la maison allèrent, suivant l'usage reçu, lui baiser la main, mais je me dispensai de cette visite. Son enterrement fut très-beau, il y eut un très-grand nombre d'hommes; les gens mariés avoient un citron à la main, et les garçons une branche de romarin quand ils revinrent après le convoi, mademoiselle Plock leur donna le repas funéraire.” (Genlis, 1825, t. IV, 295)

지내면 될 텐데 홀로 베를린으로 떠난다. 루이 14세 치하의 문학과 예술을 좋아하던 왕(프리드리히 2세)에 의해 문화의 중심이 된 베를린, 계몽기 지성들을 불러 모으던 베를린, 교육 체계 개선에 힘쓰던 베를린, 그런 베를린에서 가장 유명한 학당을 운영하는 보케 양의 집에서 하숙하기 위해서다. 40세인 보케 양은 장리스 부인을 작품들을 통해 알고 있어서 열렬히 환영해준다. 보케 양은 베를린의 재사(才士)들과 프랑스 망명객들로 구성된 모임을 이끌었고, 남동생은 베를린 학술원 회원이었다. 그런데 프랑스 망명객들이 장리스 부인을 배척했다. 프로이센 왕의 호의와 신임을 받는 그들이 그녀를 쫓아내려 작당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게다가 마침 와 있던 시에예스 신부가 약속 장소를 착각하여 보케 양의 집에 온 일을 두고 장리스 부인과 시에예스가 브란덴부르크와 프로이센 정부를 전복할 수도 있는 양 왕에게 보고했다. 이로 인해 경관이 들이닥쳐 2시간 내로 떠나라는 왕령을 전달하고, 그 경관은 함부르크까지 장리스 부인과 동행한다. 그녀는 프로이센에서 몸만 추방된 게 아니다. 거기서 맺었던 출판계약까지 깨져버려서 재정적으로도 더 힘든 처지가 된다.

망명 생활 중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은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좋은 인연들 덕분에 대부분의 위기를 넘기고, 회고록은 그런 고마운 이들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성의 가장 좋은 처소를 내주고 5주씩이나 극진히 대접해준 베데르코프 부인을 보면서 장리스 부인은 “그런 처사의 가치를 느끼려면 재산, 지위, 조국의 급작스러운 상실과 망명의 고립을 온통 다 겪어봤어야만 한다”라며 절박했던 시절을 요약한다. (Genlis, 1835, t. IV, 342) 때때로 평화로운 체류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전쟁의 임시 중단처럼 일시적인 휴식이다. 브레벨에서 목계 된 농가는 17-18세기 문학 작품들에서 흔히 보는 목가적 풍경과 덕성스러운 등장인물들처럼 묘사된다. 낙농과 목축도 하는 이 농가에서 장리스 부인은 보케 양의 조카인 제니의 시중을 들으며 하숙인으로서 꽤 편히 지낸다. 그 집 딸 레나는 그녀에게 레이스 뜨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녀는 레나와 제니에게 조화(造花)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 자주 찾아오는 베데르코프 부인과 마차로 인근을 산책하기도 한다. 파게로에(Pageroe)에서는 사과나무에

접붙인 장미도 보았고, 슬레이스비흐(Sleswig)의 헤센 왕자는 그녀를 점심에 초대하기도 한다. 개신교도인 베데르코프 부부와의 교류는 그녀의 종교에 대한 관점을 조금 수정케 했을 것이다.

이렇듯 브레벨 체류가 편안해도 장리스 부인은 여전히 베를린을 선호하여 새로 옹립된 프로이센 왕에게 편지를 보낸다. 장리스 부인이 겪은 추방을 비난한 바 있는 새 왕은 그녀의 요청을 수락한다. 다시 찾은 베를린의 첫 달은 “진정으로 마법 같은” 날들이었다고 그녀는 회고한다. (Genlis, 1825, t. V, 1) 18세기 말 베를린은 독일에서 구체제 프랑스의 명망 있던 살롱들과 유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그런 모임을 유태계 여성들이 이끌 어가고 있었다. (Bourdeau, 1886, 626) 그녀는 바로 이 유태계 교양인들과 교류하면서 지적 허기를 채우고, 대화의 즐거움을 맛본다. 그렇게 만난 코헨 부부는 구체제 프랑스의 살롱에서처럼 연극 공연도 하고 집에 연극무대까지 구비하고 있었으며, 장리스 부인에게 소품을 써달라고 한다. (Genlis, 1825, t. V, 60-61) 이렇듯 타지에서 과거의 정체성을 되찾던 터에 프랑스로 돌아와도 된다는 통지를 받은 장리스 부인은 떨 듯이 기쁘면서도 이별의 아쉬움을 느낀다.

타향에서의 체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 깨달음을 주게 마련이어서, 여행자가 방문지에 대해 갖게 되는 판단이 얼마나 피상적인지도 알게 해주었다. 장리스 부인은 함부르크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당의 텃밭 한쪽에 작은 꽃밭이 있는 집들을 보고는 이에 관해 주민에게 물어보자 교회 장식을 위한 꽃들이라고 했다.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함부르크 주민들의 신앙심을 찬양하는 여행 기록을 남긴다. 그러나 며칠 후 그런 ‘영예’는 소유주들만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허영심’에 실망하여 이전의 기록을 다 지워버린다. 타지에서는 “가능한 정보를 다 수집하더라도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는 점을 되새기고, “결코 귀납적 추론으로 판단치 않으리라” 다짐한다. (Genlis, 1825, t. V, 3-6) 베를린에서 상수시(Sans-Souci) 성을 방문할 때는 볼네(Volney, 1757-1820)의 기행문²³⁾이 떠올라서 기행문에 관한 단상을 피력한다.

“우리 여행자들 대부분은 편리하기도 한 그런 판단방식을 채용했다. (그저) 알기 위해선, 시간과 피곤한 탐구를 면하게 해주는 것들을 엿보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기행문이 추측 모음집일 뿐인 일은 그래서 생겨난다. 예전의 여행자들에게는 그저 상식과 사실성만 필요했는데, 이제 우리 여행자들에게는 훌륭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잘 살펴본 것을 충실히 그려내는 일은 그리 놀랍지 않다. 사람들이 그저 짐작만 할 수 있던 것들에 관해 올바른고 정확한 생각을 준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²⁴⁾

여행자의 자질과 이해력이 기행문의 성격과 질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보다 해당 지역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과 시스템에 관해 아는 것이 이해의 관건이라는 의견도 필라델피아로부터 온 탈레랑의 편지 내용을 매개로 하여 전한다.

“당신은 이 나라의 정부 형태가 어떠한지 알고 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넓고 광대한 영토들이 있는데 유럽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값에 소유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소. 이 지역의 새로움, 즉 자본은 없고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대단한 열의가 있으며, 제조소들이 없는데 이는 노동력이 너무 비싸고 앞으로 오래도록 비쌀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알고 있소. 이 모두를 조합해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여행자들 대다수보다 아메리카를 더 잘 아는 것이라오. 기록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관찰한 것들을 집필하고, 스텐이 얘기하는 탐색적인 여행자보다 천 배나 더 묻기 좋아하는 L...씨보다도 말이오.”²⁵⁾

23) 장리스 부인이 회고록에 책 제목을 밝히지는 않지만, 『1783, 1784, 1784년에 한 시리아와 이집트 여행 *Voyage en Syrie et en Égypte, pendant les années 1783, 1784 & 1785*』(1787)을 가리키는 것 같다.

24) “La plupart de nos voyageurs ont adopté cette manière de juger qui, au reste, est commode; car alors il suffit d'entrevoir pour connoître ce qui épargne beaucoup de temps et de recherches fatigantes. Il en résulte qu'un voyage n'est qu'un recueil de conjectures. Il ne falloit aux anciens voyageurs que du bon sens et de la véracité; il faut aux nôtres une pénétration admirable. Il n'est pas bien étonnant de peindre fidèlement ce qu'on a bien examiné: il est merveilleux de donner une idée juste et précise de ce qu'on n'a pu que deviner.” (Genlis, 1825, t. V, 3.)

25) “Vous savez quelle est la forme du gouvernement; vous savez qu'il y a de grands et

대혁명 이전에도 장리스 부인은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등지를 여행했고 그때의 묘사와 여행 일화들도 회고록에 풍부히 실렸다. 한곳에서 몇 주 머무르기도 했으나 대부분 관광이나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마간산 격 여행이었다. 망명으로 인한 유랑에서도 잠깐 머물다가 이동하는 일이 잦긴 했으나 알토나, 함부르크, 브레벨, 베를린은 꽤 오래 체류한 곳들이다. 어디서나 불안하고 불안정했으나 지역 주민들을 이해하고 편견을 조금씩 깨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대체로 책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이었는데, 여의치 않을 때는 개인교습, 미니어처 그림, 조화 만들기 등의 부업으로 연명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 다름에서 생겨나는 오해와 애증 등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들에 대한 성찰 등은 그녀의 온갖 저술에서 양분이 된다.

IV. 반추된 과거와 증언되는 현재의 대질, *Tableau*

다시 찾은 파리는 외양과 풍습의 변화로 장리스 부인을 이방인으로 만든다. 망명지에서처럼 새로운 발견에 놀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고, 여전히 거처 마련을 위해 전전공공했다. 평온한 시기에도 “이성적이건 미쳤건 늘 변하는 풍습”(Mercier, 1781, t. I, v)이 대혁명을 거치면서 잠재된 변화 요인들을 발현하는데, 파리에서는 주류 문화를 누리던 층들의 부재로 인해 더 그러했다. 파리 시민의 숫자가 “예전에 80만 명이던 것이 오늘날에는 가깝스로 60만 명인데, 귀족들과 재산 또는 입장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났기

immenses terrains inhabités où chacun peut acquérir une propriété à un prix qui n'a aucun rapport avec les terres d'Europe; vous connoissez la nouveauté du pays: point de capitaux, et beaucoup d'ardeur pour faire fortune; point de manufactures, parce que la main-d'œuvre y est et y sera encore long-temps trop chère. Combinez tout cela, et vous savez l'Amérique mieux que la majorité des voyageurs, y compris M. de L... qui est ici faisant des notes, demandant des pièces, écrivant des observations, et plus questionneur mille fois que le voyageur inquisitif dont parle Sterne,” (Genlis, 1825, t. V, 56.)

때문이거나, 지주(地主) 중에 전원이거나 지방에 체류하는 쪽을 택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Nougaret, 1808, t. 1, 3) 그리고 장리스 부인의 남편처럼 프랑스에 남아 있다가 죽은 귀족들도 많았다.²⁶⁾ 장리스 부인은 망명 기간 내내 못 본 딸과 동생의 안위가 늘 큰 염려거리였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들어 오면서, 프랑스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파리로 다가가면서, (멀리) 노트르담의 탑들을 보면서, 바리케이드들을 지나면서 느낀 감정들을 묘사하려 들지 않겠다”는 말로 격한 감정의 표현을 대신한다. (Genlis, 1825, t. V, 84-85) 낯선 파리는 그간의 일을 실감케 해주었고, 그토록 돌아오고 싶던 파리는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 보였고, 나는 호기심에 매 걸음 멈춰야만 하는 이방인 같았다. 거리 이름이 거의 모두 바뀌어 있어서 어디가 어디인지 알기 힘들었다. 성인(聖人)들로 된 거리 이름이 철학자들로 대체되었다. [...] 지나가는 마차들을 보니 내 친구들로부터 압수한 마차들이었다. 강가의 작은 가게들 앞에서 제본된 책들에 박힌 문장(紋章)을 보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다른 가게들에는 공매로 내놓은 초상화들이 널려 있었다. 어느 날 작은 골동품가게에 들어갔더니 초상화가 최소한 스무여 개 있는데 모두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 초상화들의 불행한 귀족 중 4분의 3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추방당해서 어쩌면 아직도 남의 나라들에서 헤매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²⁷⁾

26) 장리스 백작은 루이 16세의 처형에 반대하여 단두대에서 죽게 된다. 그러기 전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나의 사형 판결을 내렸음을 완벽히 알고 있소...”라고 했다. 장리스 부인은 “다른 의원들 여럿도 사형에 반대했지만 에둘러 표현했다. 예를 들어 콩도르세는 양심상 일반적인 견지에서 사형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면서 남편의 울골음에 긍지를 느끼는 동시에 아쉬움을 표한다. (Genlis, 1825, t. IV, 154-155)

27) “Tout me paroissait nouveau; j'étois comme une étrangère que la curiosité force à chaque pas de s'arrêter. J'avois peine à me reconnoître dans les rues, dont presque tous les noms étoient changés; je trouvois des *philosophes* substitués aux *saints*; [...] Je voyois passer des fiacres que je reconnoissois pour les voitures confisquées de mes amis; je m'arrêtois sur les quais, devant de petites boutiques, dont les livres reliés portoient les armes d'une quantité de personnes de ma connoissance, et, dans d'autres boutiques, j'apercevois leurs portraits étalés en vente publique. J'entrai un jour chez un petit brocanteur qui en avoit au moins une

상류사회 구성원이던 귀족과 상층 부르주아가 망명이나 전쟁으로 다수 사라졌으니 사회 풍속도 바뀌었다. 공연들은 11시나 돼야 끝났고, 점심 후에는 공연을 보러 갈 생각에 주의가 산만하고 시계만 들여다본다. 이제 “오로지 대화하러 모이던” 저녁 모임은 없다. (Genlis, 1825, t. VI, 36) 스탈 부인이 “파리에만 존재”한다던 “프랑스적인 대화”(Staël, 1818, 56)가 공연 관람에 밀린 거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가 하루를 마감했다. 점심 후 누가 와도 별로 방해되지 않았으며, 몇 시인지 아랑곳하지 않고 기분 좋게 답소를 나누었다. (Genlis, t. V, 96-97) 과거에는 귀족들이 손님을 맞을 때 냉랭한 의전(儀典)처럼 보일만한 태도나 상대방에게 지위를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피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저녁 모임에서는 “모든 것이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서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굵뜨지도 않게” 진행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 싶은 부인에게 집주인이 달려들어서 그 옆에 앉고, 가장 지위가 높은 남자를 그녀 가까이 앉히는 등 점잖지 못한 행태를 보인다. 예전에는 식사 후 여성들이 입가심을 위해 식탁에서 물러났고, 남성들은 이를 배려하느라 부속실로 갔는데, 이제는 남성들이 그 자리에서 입을 가시고, 손을 씻은 그릇에 침도 뱉는 집이 많다. (Genlis, 1825, t. V, 100-102) 상류사회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본래 여성에게 겸손함이 있다고 간주하여 그 앞에서 외모를 칭찬하거나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고, 여성들과 얘기할 때는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다시 돌아온 파리에서는 이런 존경의 뉘앙스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도 조심성을 잃어버렸다고 장리스 부인은 지적한다. (Genlis, 1825, t. V, 103) 반면, 신분 상승에 성공한 어떤 이들은 옛 궁정의 대귀족들을 흉내 내려고 그들을 “진지하게” 연구한다. (Genlis, 1825, t. V, 104) 다른 한편, 과거의 어떤 예법은 ‘자코뱅주의’에 의해 폐기되었다가 나폴레옹 치세 때 되살리

vingtaine; je les reconnus tous, et mes yeux se remplirent de larmes en pensant que les trois quarts des infortunés nobles que ces peintures représentoient avoient été guillotiné, et que les autres, dépouillés de tout et proscrits erroient peut-être encore dans les pays étrangers!” (Genlis, 1825, t. V, 85-86)

려는 경향이 시작되었지만, 절차가 되풀이되거나 길어지는, 즉 과장된 양상을 띠는 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살롱에 도착할 때나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집 여주인에게 찬사를 하러 가야만 한다고 믿는다. 예전에는 그렇게 요란하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서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도 겸손히 눈에 띄지 않게 했고, 여주인을 그토록 대담하게 공략하러 가지도 않고 깊숙이 절하는 것으로 예의를 갖추는 경우가 흔했다. 그 집을 나설 때는 작별 인사를 거창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나 그런 움직임에 이용할 만한 때를 포착하여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상호 간에 찬사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관행에 댄 정신은 훌륭했고, 그런 관습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게 좋을 것이다.”²⁸⁾

연극배우들의 연기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보인다. 예전에 라신의 『앙드르 마크』 공연을 보러 갔을 때는 같은 배우가 매우 감동적이고 덕성스러운 과부를 연기하면서 “겸손, 부드러움, 감성을 온통 다 퍼부었는데” 이제는 그 여배우가 소리 지르고 너무 격렬한 동작으로 연기해서 그 “특이한 변화”에 장리스 부인은 놀라워한다. (Genlis, 1825, t. VII, 303)

“무경험과 나쁜 취향”(Genlis, 1825, t. V, 105)은 저택의 실내장식이나 정원, 마차 형태, 언어 사용 등에서도 발견되며, 부정적인 변화가 파리를 넘어 지방에까지 퍼져 있다. 예전의 성주들이 평민들과 더 잘 어울리고 더 베풀었

28) “Par exemple, en entrant et en sortant d'un salon, chacun se croyoit obligé d'aller faire un compliment d'arrivée ou d'adieu à la maîtresse de la maison. Autrefois, au lieu de ces entrées bruyantes et triomphales, on se présentait modestement et sans éclat; on n'alloit point attaquer avec intrépidité la maîtresse de la maison, et souvent une profonde révérence formoit tout le cérémonial. Lorsqu'on sortoit, on n'alloit point prendre un congé solennel, on saisisoit le moment où d'autres personnes entroient ou profitoit de ce mouvement pour s'évader sans être aperçu, afin d'éviter l'importunité réciproque des complimens et des reconduites. L'esprit de tous ces usages étoit bon; on feroit bien d'y revenir entièrement.” (Genlis, 1825, t. V, 107-106) 거리 이름은 왕정복고(1814-1815) 때 다시 성인들의 이름으로 바뀐다. (cf. Genlis, 1825, t. V, 371)

으며, 축제 때는 성의 정원들을 개방하고 포도주나 식품 공급자들을 초대하곤 했으며, 야외 무도회에서 귀족 평민 가리지 않고 다 함께 춤추었는데, 이제는 성의 안주인들이 교만하기 그지없다는 관찰을 묘사하면서 과거의 ‘애덕(愛德, charité)’이 사라져버렸음을 장리스 부인은 아쉬워한다. (Genlis, 1825, t. V, 108-109)

대혁명 때부터 이 회고록 집필 시점까지, “그 얼마나 많은 중죄, 살인, 정당화할 수 없는 전쟁, 흉측한 불경죄, 모든 면에서의 과도함 등이 자행되었는지... 어느 나라에서 새로운 여론이 오로지 대혼란과 범죄, 공중도덕 상실, 착오, 궤변, 인문학 쇠퇴, 대중의 영혼 수준 저하 등만 생겨나게 할 때, 그 새로운 여론은 좋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고 장리스 부인은 분석한다. (Genlis, 1825, t. VI, 315-316)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혁명의 모든 사건과 사실들을 고찰해보고, 긍정의 무지각한 처신을 되새겨 보면, 그간 일어난 대부분의 일이 그리 놀랍지 않고, 그런 처신의 필연적인 결과였을 뿐”(Genlis, 1825, t. VI, 325)이라는 진단도 한다. 귀족 외의 다른 계층이 대혁명 ‘축제’ 연단의 응변으로 인해 또는 대중의 불경한 분위기로 인해 해매기는 했으나 사실상 18세기 초 섭정기의 풍속이 더 타락하고 퇴폐적이었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다. (Genlis, 1825, t. V, 171-172) 그러므로 풍속이 바뀌었다면 근본적으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계몽사상가들의 반종교적 담론들로 인해 점점 더 그렇게 되었으며, 대혁명은 그 발효의 결과가 표출된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취향의 쇠퇴가 상류사회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대혁명이 있기 얼마 전부터였다는 관찰이다. (Genlis, 1825, t. VII, 192-193)

장리스 부인의 그런 관점은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다. 현재를 묘사하면서 끊임없이 과거를 소환할 때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군주제의 이상적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오를레앙가와의 인연으로 인해 대혁명 이후 다른 귀족들보다 신변의 위협을 더 느껴야 했던 그녀는 정치는 되도록 언급하지 않으려 조심하지만, 일화들을 통해 입장을 에둘러 밝힌다. 4만 리브르의 연수익을 누릴 수 있는 드 장송이 30세에 신부가 되어 예루살렘 성지를 떠나고 성자처럼

생활한다는 일화나, 드 로양 공작이나 앙굴렘 공작 부부가 공정사회에서 신심의 모델이 된다거나 하는 사례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래서다. 대혁명의 사건들과 여파를 겪은 파리가 곳곳에 상흔처럼 지나는 이야기들도 같은 이유로 소개된다. 그녀의 거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교회는 대혁명기의 가장 참혹한 시기에 “피신해 있던 사제들 83명이 자코뱅파에 매수된 암살자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유명한데, “바닥의 돌과 벽에 희생자들의 피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그녀는 보았다. (Genlis, 1825, t. VI, 122)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을 위한 전쟁들로 어수선한 시기에 대혁명 못지않은 혼란과 위기를 느꼈고, 유배되었다가 돌아온 나폴레옹을 보며 대혁명기 공포정치 때처럼 광란의 복수극이 벌어질까 봐 두려운 그녀에게 변혁의 혼란은 진행 중이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서, 무명으로 고독 속에서 살지만 “진실하고 완벽한 신앙심”을 가진 많은 사람을 “신이 공홀히 여겨 프랑스에 미풍양속과 도덕을 재건해주고, 그 결과 평화와 행복을 회복해주시기를 소망하자”라는 궁극적 메시지를 전한다. (Genlis, 1825, t. VI, 120)

세속적으로는 “유럽 전역에서 우아함, 세련됨, 고상함의 완벽한 모델로 인용되는 만큼 (프랑스인)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Genlis, 1825, t. II, 198) 세련된 취향과 예법이 사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는 그녀는 그 심경을 ‘나쁜 취향’의 희화화로 자주 표현한다. 이는 명예보다는 축재(蓄財)를 더 중요시하는 세태 변화에 대한 탄식이기도 하다. 대혁명 이전 ‘유한계급(有階級)’이던 장리스 부인은 파리에 돌아와서도 글쓰기를 밥벌이로 하여 근근이 살아가고, 여의치 않으면 개인교습을 하거나, 극단의 경우 저작권을 가족이나 친지에게 팔기도 했다. 과거에는 여가 활동이던 것이 이제는 생계 수단, 더 나아가 생존의 방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큰 의미를 띤 활동이었다고 보인다. 그녀에게 글쓰기와 음악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역경을 견디게 해준 정신적 문화적 자산이었다.

V. 맺음말

시대와 시대정신을 그려 보이하고자 했던 장리스 부인의 『회고록』은 궁정, 도시 상류사회, 지역 성들 등의 풍속을 일화들과 ‘초상’(portraits)을 통해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사회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데, 자전적 저술이 대체로 그렇듯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시각과 판단이 개입된다. 게다가 교육적 신념이 강한 그녀는 회고록이라는 장르에서도 어떻게든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 현실의 단면들을 취사선택한다. 그 어떤 의미에서건 지나친 양상은 피하는데, 이는 오래도록 교훈적 취지의 작품을 써온 작가로서의 본능일 수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영화나 책 내용의 제한선을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애쓰던 점잖음(bienséance), 품격(bon ton), 좋은 취향(bon goût)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그녀를 깎아내리려던 이들은 이런 태도를 가식이나 위선이라고 폄하했다. 주류 정신과는 어긋나게 기독교 정신을 일관되게 주창한 탓도 있고, 그녀의 다재다능을 시기한 험담이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그녀의 회고록은 17세기 회고록에서 흔히 보이던 회개와 신 안에서의 자기 부정보다는 자기변호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나’에 관한 이야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그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여긴 탓이기도 하다. 생애 흐름을 즐기려 하여 시대와 세상을 묘사하는 가운데, 그녀의 내면을 가장 깊숙이 파고들었을 사건들, 즉 개인적 사건들에 관해서는 대강 얘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듯하다. 그녀는 첫 딸의 죽음, 아들의 죽음, 남편의 죽음 등에 관해 길게 토로하지 않는다. 둘째 사위인 발랑스에 관해서도 부부가 왜 따로 사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내밀한 나를 내보이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하다. 천진하게 속내를 다 드러내는 롤랑 부인(Manon Roland, 1754-1793)의 『회고록Mémoires de Madame Roland』(1820)에 대해 “추잡스럽고”, “여인의 펜으로 그려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묘사들”을 담고 있으며, “아주 상스러운 취향과 매우 나쁜 정조(情調, ton)로 오염된”(Genlis, 1825, t. VII, 117) 묘

사들이라고 통탄한 데서도 느낄 수 있다.

세상의 규범이나 관습, 예법이나 관행 등은 일상생활에 밀착된 만큼 편견처럼 고질적일 수 있다. 게다가 관습이나 예법이 구체제 상류층에게는 특권적인 안락을 보장해주는 보호장치가 되고, 그런 만큼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예법과 관례에 맞도록 처신할 의무가 강화된다. 그런 궁정사회에서 자신을 단단히 지켜가며 제자들 또한 그렇게 키우려고 애썼던 세월이 장리스 부인에게 그런 의무를 신조처럼 여기게 했고, 그 신조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여겼던 듯하다. 스탈 부인이나 코린²⁹⁾이 “모든 예의범절과 모든 기존 예법을 무시하고, 정신 나간 열정에 맹렬히 몸을 던지는”(Genlis, 1825, t. V, 351) 모습에 대해 염려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우려한 것은, 샤토브리앙과 마찬가지로 ‘도덕의 법칙’이라 믿는 종교를 내쳐버리는 새로운 질서이다. 민중에게는 “신비를 지닌 신앙”이 필요한데, 이를 내쳐버리면 늘 미신적이 돼 버린다는 것이 장리스 부인의 관찰이다. 그래서 계시종교를 거부한 계몽사상가들이 사람들을 미신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고 그녀는 비판한다. (Genlis, 1825, t. VI, 43)

장리스 부인은 덕목이라 여겨지던 풍습들이 사라져가는 세상을 묘사하면서,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감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건다.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 즉 18세 정도의 나이에 ‘나의 인생 또는 상상의 회고록’을 써보라고 그녀는 권한다. (Genlis, 1825, t. VIII, 91) 인생 설계에 유익한 글쓰기라고 여긴 것이다. 1798년 아카데미 프랑세즈 사전에 따르면 회고록은 “뭔가를 다시 회상하게 만들기 위해서나 어떤 사안에 관해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쓰인 글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라틴어 *memoria* 또는 *memor*에서 유래된 단어 ‘회고록(mémoires)’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즉 저자 쪽에서 보면 유산처럼 전해주기 위해 쓰인 글이다. 관습이나 예법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지도 않고, 온전히 보존되지도 않고, “옛 풍습이

29) 스탈 부인의 소설 주인공.

새로운 풍습에 파고들어 그 기초를 이루는 것”(Chateaubriand, 1910, t. 4, 407) 이라면, 장리스 부인은 그 기초라고 믿는 바를 전하는 일을 소명처럼 여긴 것이다. 그래서 회고록에 실린 일화나 교훈적 담론은 그녀의 허구작품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비교문학자 데데이양처럼 장리스 부인을 “작가로서, 전파자로서, 범유럽 차원의 중개자로서 그 시대를 표상하는”(Dédéyan, 1976, t. 2, 322) 여성작가라고 볼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주제어】 장리스 부인, 회고록, 대혁명, 망명, 풍습, 변천

[참고문헌]

1. 1차 문헌

Genlis, F. de (1825), Mémoires inédits de Madame la Comtesse de Genlis sur le dix-huitième siècle et la Révolution française depuis 1756 jusqu'à nos jours. Paris: Ladvocat.

Genlis, F. de (1857), Souvenirs de Félicie, par Mme de Genlis, suivis des Souvenirs et portraits par M. le Duc de Lévis. Paris: Didot.

2. 2차 문헌

Bluche, F. (1993), L'Ancien Régime: Institutions et société. Paris: Eds de Fallois.

Bourdeau, J. (1866), "L'Allemagne au XVIIIe siècle", In Revue des Deux Mondes. 3e période, t. 76, pp. 593-626.

Bruntière, F. (1914), L'Evolution des genres dans la littérature. Paris: Hachette.

Chateaubriand, F.-R. de (1910), Mémoires d'Outre-tombe. Paris: Garnier.

Coulet, H. (2000), Le Roman jusqu'à la Révolution. Paris: Armand Colin.

Crusacq, P. (1902), La naissance, le mariage et le décès: moeurs et coutumes, usages anciens, croyances et superstitions dans le Sud-Ouest de la France. Paris: H. Champion.

Dédéyan, Ch. (1976), Le cosmopolitisme européen sous la Révolution et l'Empire. Paris: Société d'édition d'enseignement.

Fénelon, F. de (1917), De l'éducation des filles, introd. par Emile Faguet. Paris: Nelson.

Forneron, H. (1884), Histoire générale des émigrés pendant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Plon.

Gusdorf, G., (1991), Les écritures du moi. Paris: Odile Jacob.

Guizot, Fr. (1858-1867), Mémoires pour servir à l'histoire de mon temps. Paris: Michel-Lévy frères.

La Rochejacqueline, V. de D. (1889), Mémoires de Madame la marquise de La Rochejacqueline. Paris: Bourloton.

Lejeune, Ph. (1998), Les Brouillons de soi. Paris: Ed. du Seuil.

May, G. (1984), L'autobiographie. Paris: PUF.

Mercier, L.-S. (1781), Tableau de Paris. Neufchâtel: S. Fauche.

Nougaret, P.-J.-B. (1808), Aventures parisiennes, avant et depuis la Révolution. Paris:

Duchesne.

- Pascal, B. (1869), *Pensées*, In *Oeuvres complètes de Blaise Pascal*, t. I. Paris: Hachette.
- Petitfils, J.-C. (1973), *La Droite en France de 1789 à nos jours*. Paris: PUF.
- Ricoeur, P. (1990), *Soi-même comme un autre*. Paris: Eds du Seuil.
- Seth, C. (2013), *La Fabrique de l'intime. Mémoires et journaux de femmes du XVIIIe siècle*. Paris: Robert Laffont.
- Soboul, A. (1891), *Comprendre la Révolution: problèmes polit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1789-1797*. Paris: F. Maspero.
- Veblen, Th.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Macmillan.

[국문초록]

장리스 부인의 『회고록』은 18세기 후반의 궁정사회와 상류사회의 풍속, 대혁명 사건과 망명 귀족의 생활상 등을 증언하고, 19세기 초 왕정복고 때와 나폴레옹 치세 하의 파리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서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상파뉴 지방의 성에서 보낸 안락한 어린 시절, 결혼 후 파리 상류사회에서의 사교 생활, 팔레-루아얄 왕가 자제의 가정교사 이력, 대혁명 사건의 목격, 9년간의 망명 생활, 변해 버린 파리와 풍속, 나폴레옹 치하의 또 다른 혼란과 불안정한 정세 등,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까지 격동의 시기를 묘사하고 서술하는 그녀의 회고록은 각 시기의 풍습과 관행의 변천을 보여준다. 그런데 ‘나’의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얽히는 회고록에서 그녀가 취한 서술방식은 다분히 문학적이다. 사건들의 객관적인 묘사가 아니라 잘 짜인 플롯과 연극적 효과를 겸비한 일화들이 풍부하고, 과거의 추억들이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이미지들로 미화된다. 게다가 그녀의 창작 활동에서 익숙하던 글쓰기 양식들, 즉 인물 묘사, 추억담, 기행문, ‘풍경’ 등의 형식이 각 시기의 내용에 맞게 적용된다. 이렇듯 ‘문학적인 회고록’에서 무수히 소개되는 일화들은 주로 과거의 미덕들을 실천한 인물들이어서 저자의 여전한 계층의식을 느낄 수 있다. 그녀가 전하는 과거의 풍습과 예법은 그녀를 버티게 해 준 신조였고, 구체제 상류사회에서 습득하고 즐긴 문화생활은 좋은 시절에는 즐거운 여가였지만 고난의 시절에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을 버티게 해주었다. 그 문화유산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이 회고록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인다.

[Abstract]

Conventions and Vicissitudes Depicted by the Memoirs of Mme de Genlis

Hyosook LEE (Yonsei University)

Mme de Genlis's *Memoirs* contain the customs of the court society and upper society in the late 18th century, testify to the event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lives of exiled aristocrats, and describe the Parisian landscape during the Restoration and Napoleon's reign, drawing the attention of historians. Her *Memoirs* describe and narrate the turbulent times from the mid-18th century to the early 19th century, including her childhood in a castle, her social life in Parisian upper society after marriage, her history as a 'gouverneur' to the children of the Palais-Royal royal family, her witnessing of the French Revolution, her nine years in exile, the changes in Paris and its customs, and the further chaos and instability under Napoleon's reign, showing the changes in customs and practices. However, the narrative style adopted in her *Memoirs*, where her story and the story of the world intersect and intertwine, is literary. Rather than objective descriptions of events, there are a lot of anecdotes that combine well-organized plots and theatrical effects, and past memories are embellished with idyllic and lyrical images. In addition, the writing styles that she was familiar with in her creative activities, such as 'portraits littéraires', 'souvenirs', 'récit de voyage', and 'tableau', are applied to the content of each period. The anecdotes are mainly about people who practiced the virtues of the past, so we can feel the author's still-present class consciousness. The customs and etiquette of the past that she conveys were the creed that sustained her, and the cultural life she acquired and enjoyed in the upper class society of the old regime was an enjoyable leisure in good times, but it sustained her life both mentally and materially in times of hardship. The ultimate goal of this *Memoirs* seems to be to pass on that cultural heritage to the younger generation.

[Keywords] Mme de Genlis, memoirs, French Revolution, exile, customs, vicissitude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27일 / 논문심사일: 2024년 12월 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26일

【저자연락처】 hyosook_lee@yahoo.co.kr